



“잘해봅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 만났으나...꼭막힌 정국은 못 풀었다

정치복원·세월호 협상 등

대화 재개 ‘물꼬’ 진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첫 회동을 가졌으나 꼭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다만, 정치 복원과 세월호 협상 재개 촉구 등 몇 가지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해 향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파행 정국극화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양당 대변인들이 밝혔다. 양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대표실에서 오후 4시부터 회동했으며, 모두발언 후 약 20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회동을 했다. 비공개회동에 앞서 김 대표는 “문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며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문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문 위원장은 “막힌 것을 뚫는 데는 둘 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김 대표가 늘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기본을 어기지 않고 아주 ‘통 큰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애초 이날 회동에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세월호특별법 협상

의 주제가 양당의 원내대표인 만큼 큰 원칙만 선언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날 회동 결과는 애초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두 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화 재개의 물꼬를 뚫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협상 재개의 적기라는 분석하고 있다. 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해 여당은 협상 파트너를 회복했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도 전날 총회를 열어 대대적 폭행 논란에 휩싸인 지도부를 대신할 새 임원을 선출했다. 현재로서는 세월호법을 바라보는 여야, 유가족 간 시각차가 워낙 커 당장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

하다. 하지만, 양당 대표 모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정치연합 측이 ‘조사위 기소권·수사권 절대 관철’이라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노(진노무현)계 강경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양당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을 기준으로 밀고 당기기 속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쟁점은 수사권·기소권에서 특검추천권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동철, 노후 산단 환경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가 ‘노후 산단 실태진단 및 혁신역량 강화방안’, 중앙대 이종영 교수가

‘노후 거점산단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지정토론, 이후 포럼 소속 의원들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황주홍, 병역특례 연안 여객선까지 확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2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연안 여객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화물선과 원양 연근해 어선에서 3년간 복무하는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는 연안 여객선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황 의원은 “현재 연안 여객운송은 63개 사업자가 여객선 173척을 운항하고 있고, 선원 988명 중 50대 이상이 67%이며, 임금 수준은 원양 상선의 59%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승남,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측정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어촌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농어촌용수를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희상비대위 ‘혁신’ 기치...당 재건 나선다

첫 회의...계파주의 청산 선언

비서실장에 박흥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혁신’을 기치로 본격적인 당 재건에 나섰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계파의 이해관계와 4개월 남짓한 촉박한 시간의 압박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의 3대 임무 중 하나로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정치와 정당 혁신은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다. 거기에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지원, 정세균, 인제근 의원도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문 위원장은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계파주의의 청산을 선언하며 회의에 참석한 계파 보스들에게 협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혁신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 대선 패배 후 개별적으로 제시된 개혁 과제들을 추려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현실화될 것인지 미지수다. 당장, 4개월여의 기간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국회 등과 겹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외해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강화특위 등의 내부 조직을 하나하나 구성해야 해 혁신에 쏟을 여력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비대위는 혁신을 하기에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비대위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전당대회를 준

비하고 당 전체의 혁신은 새로운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계파의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이 참여한 비대위가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겠느냐는 비판도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중도파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비대위는 각 계파의 수장들로 구성되어 원로회의에 가깝다”면서 “비대위원 구성으로 보면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조경식 사무총장과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를 대부분 유임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에 초선의 박흥근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23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매주 화요일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이희호 여사와 만나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전면적 상향식 공천 등 초·재선 의원들 강력 반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가 22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전면적 상향식 공천과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특수약자층에 대한 비례대표 점의석 배분’ 언급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아침소리’에는 김영우·조해진·강석훈·서용교·하태경 의원 등 5명이 보수혁신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기모임을 가진 직후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완전 상향식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6·4지방선거에서 현역기득권 지키기나 돈선거 부추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수약자층에 비례대표 점의석이 배분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자층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만 100% 공천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해자 ‘관광진흥개발기금 39%가 영남 편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의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6월말까지 시도별로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 6603만원이며 이중 영남권은 625억

7415만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대전·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 636억29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호남권은 346억6207만원으로 21.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정현·김광진, 국회서 영화 ‘순천’ 공동시사회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의원과 순천·순천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비례)이 22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영화 ‘순천’(감독 이흥기)의 공동시사회를 개최했다. 영화 ‘순천’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순천만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오는 25일 전국에서 개봉하며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의 초청작이다. 두 의원은 이날 시사회 공동 주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으며 고향을 알리려는 순수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총도리살 장학금 소화기 500여개 2,400만원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원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원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3등 제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4등 쿠키인력발수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당첨시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